

배움의 열정 실천으로 꽃피운다

전국의 불교 대학이 연간 쏟아내는 졸업생들은 3천여 명. 이들의 '공부바람'이 이제는 신행 · 봉사 · 포교로 번져가고 있다. 순전히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재가불자신행패턴도 바뀌고 있다. 기복과 소극적 태도에서 작복(作福)과 적극적으로 전

< 신행기획 >

- ① 이시대의 화두 '실천'
- ② '포교열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환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운 것을 실천하려는 이들의 초발심을 유지시켜 줄 사찰의 관리와 봉사 · 포교 시스템도 정착되어야 한다. 불교대학 재학 · 졸업생들이 주도하는 신행흐름과 방향을 2회에 걸쳐 짚어보기로 한다.

이 기복, 가족 위주의 개인적인 신행에서 자원봉사 등 사회적 신행형태로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 불교대학 출신의 재가불자들이 이러한 신행모임을 활성화하려면 종단과 사찰의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라만상 2004
2004 광주비엔날레가 9월 10일 개막했다. 올해로 10회째인 2004 광주비엔날레는 '먼지 한톨 물 한방울'을 주제로 동양적 사유와 정신을 집중 조명하는 각종 전시회와 공연 등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사진은 광주 중외공원내 교육홍보관에 설치된 재미 설치미술가 강익중 씨의 '삼라만상 2004'. 3,349개의 부처님이 형상화된 작은 캔버스들이 모여 거대한 작품을 이루고 이크릴릭, 모션 센서, 모터, 365개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캔버스 곳곳에 부착되어 소리를 낸다. 광주=이준업 기자

불교대학 졸업생들 봉사 · 포교현장 맹활약 연간 3천여 불자 졸업 ... 신행 새기류 형성

매주 일요일 아침, 서울 불광사 불교대학원 졸업생 12명은 연천 999 부대를 찾는다. 양산에 든 비닐봉투에 '초코파이'가 한 가득이다. 손가락 놓고 돌아서면 배부른게 금세우는 젊은 군장병들. 목이 빠져라 이들을 기다린다.
"내 아들 같아요. 군부대에서 마음 편하게 쉬면서 부처님 말씀 한 마디라도 듣고 가면 그것으로 보람을 느낀답니다."

을 맡으면서 대구교도소에서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관심 분야에 따라 기도, 목욕봉사, 결식아동 돕기, 상담, 간병 등 세분화된 자원봉사분야 가운데 윤 씨가 선택한 것은 합장단 활동. '노래봉사'를 할 때마다 포교 원력은 더욱 굳건해진다고 말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불교사회복지대학 졸업생들도 마찬가지. 지난 1995년 자원봉사단을 결성, 1년 과정 동안 배운 '복지의 3요소'를 직접 실천하고 있다. 발산사, 한방 요법 등 3천여 불자들이 복지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다. 또 서울 능인선원 불교대학 졸업생모임 '상조회'는 장의엄불봉사를, 전북불교대학 출신 '경전독송회'는 호국영령을 위한 독경을, 안양불교대학 졸업생들은 안양교도소 불자 수감자들과 법음을 나누고 있다.

생 박해종(58·해각) 씨는 4년 전부터 500여 명의 이 대학 졸업생들 중심으로 출범시킨 '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활동에 자부심이 대단하다. 통도사를 찾는 참배객들이 불교문화의 진수를 맛보고 돌아갈 때면, '불교문화 알리기'로서 긍지를 느낀다고 말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불교문화 알리는 것이 불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움의 실천'이라고 여기고 있어, 자긍심도 크다. 또 부산불교교육대학 수화반 동문 모임인 '심어회'는 5년 넘게 불자정각장애인 법회에서 수화통역을 맡으며 '소리 없이' 법음을 전파하고 있다.

큰 배움 즐거운 회향

이 대학 졸업생 권혁위(54·정대) 씨. 불교공부하면서 세운 원력을 군포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자신이 늘 자랑스럽다.
불교대학 재가불자들의 '배움의 열정'이 신행 · 봉사 · 포교로 이어지고 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재학생, 졸업생 가릴 것 없이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낸 것이다. 게다가 움직임도 활발하다.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복지시설 정기적 방문, 장의엄불, 합장단 공연, 문화재 해설, 다도 보급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다. 여기에 장애문화학과, 설법학과 등 특성화된 학과를 졸업한 불자들이 전공을 살린 활동을 펼치면서 실천분야도 전문화 · 다양화되고 있다.
대구영남불교대학 졸업생 윤중선(60·법운화) 씨. 10년째 합장단장

철저한 무보수 원칙

이러한 불교대학 재가불자들의 활동은 사찰이나 모교에 유 · 무형의 도움을 주고 있다. 활동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알아서' 자급자족하면서 신도조직까지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무보수 자원봉사' 원칙은 사찰과 대학, 지역 사회단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99년 통도사박물관대학 1기 졸업

모두의 행복을 위해

불교대학 재가불자들의 '신행 일치(信行一致)'는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 최근에는 재가불교 신행운동의 주축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신행 패턴을 바꿔놓고 있다.
서울 동산불교대학은 2003년에 대학 동문 108인을 중심으로 재가 신행결과체인 '부다클럽'을 결성, △매일 부처님 전 108배 △매일 이웃에게 포교 △매일 정기적인 사회 봉사활동 등의 '5대 실천 덕목'을 공포하는 등 재가불자 신행의 새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안양불교대학장 현호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 재가불자의 신행흐름

부처님 후광의 실체는?

소광섭 교수 '인체의 빛' 연구 주목받아

"부처님의 몸은 청정한 금산(金山) 같이 둥그런 광명이 밝게 타오르며, 그 광명의 들레는 한 길이나 된다"(대장엄경) 했고,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 금빛이 나는데 그것은 전륜성왕이 갖추고 있는 32상 가운데 하나"(장아함경)라고도 했다.
이런 특징은 부처님 상 조성에 반영돼, 부처님 두상 뒤편에 원형, 혹은 몸 전체 뒤편에 타원형 광채로 표현된다. 이를 광배(光背)라 한다. 흔히 부처님의 신성함과 위대함을 장엄하는 효과로 이해돼 왔다. 하지만 그것이 비단 장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 현상임을 입증할 만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은 소광섭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소 교수는 모든 생명체는 빛을 발산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에 착안, 인체에서 나오는 빛을 연구하고 있다. 빛의 실체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나오

는 자외선. 소광섭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광증폭기가 개발돼 측정이 가능해졌다.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열린 '국제 생명정보과학 학술대회(ISLIS)'에서 소 교수는 인체의 건강상태에 따라 발산되는 바이오포톤의 양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바이오포톤이란 바이오(bio·생명체)와 포톤(photon·광자)의 합성어로서, 생명체에서 나오는 광자를 뜻하는 말이다.
이로부터 연구팀은 인체의 건강상태가 발산되는 바이오포톤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내놓을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이승호 박사(서울대 한의학물리연구소)는 "수행의 깊이가 바이오포톤 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며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질병 여부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장치 개발이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선학원 前 이사장 정일 스님 원적 11일 법주사서 문중葬 엄수

11일 법주사서 문중葬 엄수

선학원 前 이사장 남산 정일(南山 正日) 스님이 9월 7일 새벽 보은 법주사 공현당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수 73세, 법랍 47년.
1932년 서울 태생인 스님은 57년 조계사에서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 54년 사미계를, 6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58년부터 80년까지 망월사, 법어사, 통도사, 해인사, 불국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단했으며, 강진 백련사 주지, 정각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특히 92년부터 2003년까지 선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영결 · 다비식은 11일 법주사에서 문중장으로 봉행됐다. 행장 4년 남동우 기자



'할'

그림 · 조태호

천룡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도와주려는데
도리어 갈을... 불신시대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무료로 전화요금환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www.dosunsa.or.kr
호국점회 관음기도 도량 삼각산 도선사

7관세음 33일 기도 33인 고승 대덕 초청 대법회

수도 서울의 최고 기도 도량 삼각산 도선사가 감묘의 법문을 듣는 고승 대덕 초청 대법회를 9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거행합니다. 14분의 고승 대덕 법문 및 7관세음 33일 기도를 함께 봉행하는 법회에 사부대중을 모십니다.

- 법문 및 기도 : 12시
- 문의 : 993-3161~3

법장 스님 9월8일	인환 스님 9월11일	현성 스님 9월15일	무진장 스님 9월18일	지관 스님 9월20일	고산 스님 9월22일	해성 스님 9월23일	월운 스님 9월26일	혜정 스님 9월30일	암도 스님 10월3일	보성 스님 10월5일	종범 스님 10월6일	성수 스님 10월9일	월주 스님 10월11일
---------------	----------------	----------------	-----------------	----------------	----------------	----------------	----------------	----------------	----------------	----------------	----------------	----------------	-----------------